



- 연중 제13주일 · 교황 주일 - 2019년 6월 30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05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8지구 - 광탄 성당



설립 2009년 9월 8일 전화 사무실 031-949-4210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 1리 77

제1독서 1열왕 19,16ㄴ,19-21

화답송 시편 16(15),1-2ㄱ과 5,7-8,9-10,11(㉠5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 환호송 1사무 3,9; 요한 6,68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9,51-62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갈림없는 마음으로



이종원 바오로 신부
덕소 부주임

연중 시기는 주님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의 매주일의 “작은 부활 축일”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또한 연중 시기는 주님께서 수난-죽음-부활을 통해 남겨주신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살아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주일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한 바를 어떻게 삶 안에서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늘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 이번 주일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마 오늘 봉독된 독서와 복음을 들으며, 특히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쟁기”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우리 각자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이라 느껴집니다(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의 믿음이고 가르침이지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일단 응답하였다면, 그때부터는 갈림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이라 느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질책의 말씀이라기보단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눈이 가고, 세상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염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일조차도 주님의 섭리에 내어맡기고 부르심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



위험한 호주머니



그녀는 어린 시절 호주머니 속에 공깃돌 다섯 개만 들어 있어도 만족해하였다.

어떤 날은 껌 한 개 들어 있는 호주머니 속을 들여다보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들락거렸다.

버스표가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였다.

또 어떤 날은 지폐가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그녀의 차지 않는 호주머니에 대한 불만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처녀가 되면서부터 불만은 본격화되었다. '내 지갑은 왜 이렇게 빈털터리냐'고 불평하였다.



때로는 남의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하였다.

그녀는 시집을 갔다. 호주머니 속에 껌돈이 들락거렸고 저금통장이 들락거렸다.

그녀는 소원하였다.

“작아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작은 차라도 한 대 생긴다면 저는 아마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녀의 호주머니 속에 마침내 집문서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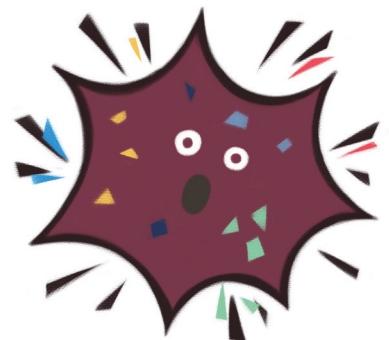
자동차의 열쇠 또한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호주머니는 다시 또 커졌다.

“집이 이게 뭐예요? 더 커야겠어요. 차가 이게 뭐예요? 더 큰 것이어야겠어요.”

그녀는 차지 않는 호주머니에 계속 더, 더, 더를 원하였다.

그런데 그 호주머니가 터지면서 그녀를 집어삼킬 줄이야!

-당신도 지금 이런 위험한 호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으신지? 🌀



가톨릭 교육자 하루피정

“주님, 정녕 당신께서 저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시편 18,29)

2019.07.20(토) AM.09:30-PM.16:00

의정부교구 신양교육원

교구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유치원·초중고 교사,
대학교 강사 및 교수



09:30-10:10

들어오기 & 찬미하여라 (생활성가 부르기)

10:10-11:1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와 교사의 삶 I

● 강사: 이영근 아오스팀 수사, 양주 올리베라노 수도회

11:30-12:3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와 교사의 삶 II

● 강사: 이영근 아오스팀 수사, 양주 올리베라노 수도회

12:30-13:20

정식 (도시락-교구청 식당)

13:20-15:00

회복적 영성활동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

● 진행: 교향 바주 교육자 모임

15:10-16:00

마침 미사 ● 주일미사로: 교구청 주교님 집전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도구, 개인 컵

피정비

● 10,000원(1인, 점심식사 포함)

접수 및 입금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http://ucatholic.or.kr>) 참조

문의

청소년사목국 (031-850-1456)



천주교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

신흥유사종교 - 용어정리

2.1. 신흥종교(新興宗教)라는 말은 기존의 종교가 아닌 새로이 발생한 종교라는 뜻의 말이다. 대체적으로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 이후 발생한 종교들을 일컫는다. 한국 전쟁 이후 신흥종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안에서 분화되어 나왔다. 이들은 그 교리나 사상, 종교적 의례, 교단의 조직 등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고착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몇 마디 말로 그 주장이나 종교적 실천이 바뀌기도 한다.

2.2. 이단(異端)은 기존의 종교 안에서 정통적인 입장과 다른 교리 해석으로 그 공동체를 해치는 집단과 그 주장을 말한다. 개신교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단죄와 해소가 그리스도교 교리의 문제일 때는 이러한 판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개신교 교파간의 논쟁이나 기득권 문제, 물질적인 이유 등 교리와는 무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개신교계가 여러 교파로 끊임없이 분화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더 복잡하다.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현재 유사(類似)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반사회성이 가장 중심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즉 성윤리의 문제나 말세 개벽 등 현세를 부정하는 태도가 반사회성의 지표로 떠오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사상의 불법행위이다. 신도들의 성금을 유용하는 것은 공갈이나 사기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리상 황당무계하거나 비과학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기성종교의 교리를 혼합하였을 경우에도 유사종교라 판명한다.” ‘유사종교’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기존의 종교와 닮은 것이 있지만 다른 행태를 보

이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민족종교운동(천도교, 대종교 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사용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2.4. 사이비(似而非)는 유사종교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 한자말이 의미하듯이 ‘비슷하지만 아닌 것’ 곧, 종교를 표방하지만 그 본질이나 목적이 종교와는 무관한 이들의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교주에 대한 영웅-신격화와 지나친 숭배, 자신들의 절대성 강조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 기존의 종교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기존 종교의 부패 강조), 내부의 일들(교리, 집회장소, 재산, 신앙활동, 분쟁 등)에 대한 강한 비밀주의 등의 특징을 보인다. 때로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와 불법적인 행위(홍보활동을 위한 주거침입, 사기와 속임수, 책자나 동영상, 집회나 설교를 통한 공포감의 조성, 가출이나 이혼의 조장, 강제합숙과 집단 동원, 현금 갈취, 재산의 유용과 착복, 신도들의(무임금/저임금) 노동력 착취, 신도의 사생활 통제, 탈퇴자나 반대자 등에 대한 폭력 행사)로 정부로부터 제재나 수사, 집단의 해체와 지도자의 구속과 실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5. 여기서 우리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한다. 바로 기존의 사회와 종교들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가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교회를 포함한), 기존의 권위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그 혼란에 휩싸이거나 또는 원인이 될 때,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할 때 이러한 이들이 더 득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왜곡한다며 배타적 입장에서만 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실천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김대우 지음 | 면수: 332면 | 14,000원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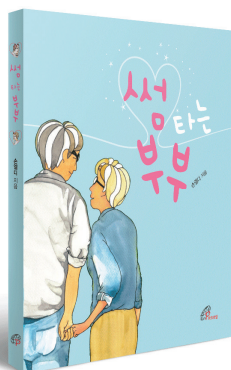
문의 | 의정부 031-875-7004, 일산 031-921-3016 www.pauline.or.kr

오늘도 신비에 물들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인연과 소소한 사건들을 저자의 영적 섬세함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사목 수필.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오늘'을 산다. 누군가에게는 결전의 날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 받은 아픈 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

하는 빛나는 날일 수도 있다. 나의 오늘은 어떤 날일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신비로움이 가득한 날이다. 인간 영혼 안에 깃든 영안(靈眼)으로 그 신비를 알아볼 수 있다면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나의 하루를 가만히 안아주는 책을 만났다.



쌈 타는 부부

손엘디 지음 | 면수: 172면 | 12,000원

바오로딸

문의 | 의정부 031-875-7004, 일산 031-921-3016 www.pauline.or.kr

사랑도 업데이트가 필요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는 '가정'이 있다. 가족의 불화, 가정의 붕괴, 위기의 가정, 위기의 부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노력의 바탕에는 신앙과 복음이 있다. 틀린 점을 고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자의 작은 경험담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녹아들어 있다.

사람은 이별하는 존재이니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예수 성심 성월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신앙인들의 '신앙 감각'은 '예수성심'을 흠송하는 신심이 교회의 전통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세기에 들어 신학자들 안에서도 예수성심 신심이 지닌 깊은 의미를 진지하게 조명하는 시도가 나타난 것은 새로운 조짐입니다.

교회는 근대 이후에 이성과 과학적 사고와 진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계몽의 변증법'과 대면했습니다. '근대주의'에 대해 단죄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비판하고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탈피하고자 시대정신을 식별하고 옥석을 구별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간 발전의 추구, 과학과 기술의 선용, 상호 소통하여 합리적 이성과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의사결정 구조 등은 근대와 현대 사상의 긍정적 요소들이죠. 교회도 이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사목헌장>을 음미해보면 이러한 역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근대 및 현대 사상과 비판적 대화를 하면서 계몽주의와 합리적 이성의 결실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성중심주의가 가진 그림자를 감지하고 치유하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인간은 합리성만이 아니라 따뜻하고 공감하는 마음, 조건과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예수성심 신심이 현대인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20세기의 영성과 학식을 겸비한 출중한 신학자들이 통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위스 출신의 대 신학자 한스 우르수스 폰 발타사르 추기경(1905-1988) 인데, 젊은 시절 운문의 형식으로 쓴 예수성심에 대한 뜨거운 찬미가 <세상의 심장 Das Herz der Welt>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거의 반세기가 지나 그가 선종한 해에 다시 불인 재판의 서문을 통해 이렇게 적어둡니다. "예수성심은 우리의 사랑하려는 간절한 의지와 무력함에 동시에 당신을 열어주시며,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능동성과 수동성의 일치라는 사랑의 심오한 본질을 알려주신다."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은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가장 절실하고 깊게 만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무릇 사람은 이별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자에 여러 번 겪은 동료 신부님 부모님들의 선종을 떠올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의 각기 다른 생이 있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여러 모습의 이별을 겪는다는 것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별을 통해서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이 궁극적으로 예수 성심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안에서만 주어지는 통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라는 원초적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악의 영감이 되었지요. 우리의 고전 판소리 <춘향전>에도 그런 대목이 탁월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가고 이틀가고 열흘가고 한달가고 / 세월도 유수같이 그리움도 흐르는 구나// 갈까부다 갈까부다 임따라서 갈까부다 /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네"

2000년대에 등장한 '두 번째 달'은 세계의 민속음악을 한국적 대중음악에 참신하게 접목한 뛰어난 그룹입니다. 그들이 2016년에 내놓은 <판소리 춘향가>는 젊은 소리꾼들과의 합동 작업으로 멋지게 판소리의 매력을 오늘날의 감성에 담았습니다. 그 중 <이별가>는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춘향가의 이별하는 대목에 자신들의 대표곡 "얼음연못"을 가미해서 우아한 슬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서정민집 <음악편애>(민중의 소리, 2019) 240쪽 참조). 이들은 공연이 훌륭하기로 평평이 있는데, 다행히 <이별가>의 멋진 라이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을 탁월하게 오늘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이들의 연주와 젊은 소리꾼 김준수의 절창을 들으며, 인간은 이별하는 존재임을, 그러나 이별의 아픔 역시 예수성심의 사랑 안으로 수렴되어 가는 한 과정이라는 신비를 마음에 담습니다. 🎵

YOUTUBE로 보기



두번째 달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온스테이지] 라이브



교구장 동 정

6월	30(주일)	11시	견진성사 - 일산성당
		17:0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미사 - 고양동 성당
7월	2(화)	20시	사목방문 - 퇴계원 성당
	3(수)~5(금)		지구장연수
	5(금)	20시	견진성사 - 원당 성당
	6(토)	18:30	견진성사 - 별내 성당



교구 소식

7월 불나팔미사(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안내

일시 7/3(수) 20시

장소 일산 성당

임상사목교육(CPE) 2019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교육 8/24~12/14(매주 토요일 16주간)

대상 이웃과 자신을 위해 위기상담 기술훈련을 원하는 분

모집 면접심사 후 6명 선발 /교육비: 80만 원

문의 Supervisor 고종향 신부 010-2235-2117

7월 평화사도 월례미사 -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7/1(월) 19시~21시

미사 강주석 신부 / 참회와 속죄의 성당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육아휴직 대체 직원 모집

인원 1 명

기간 2019년 8월 ~ 2021년 4월(21개월)

근무 09:00 ~ 18:00(월~금)

급여 협의 후 결정

마감 7월10일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자격 ERP 회계 프로그램 유경험자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우편접수처 및 근무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청년 도보순례

일정 8/15~18(3박4일)

대상 하루 20km 도보순례가 가능한 청년

접수 8/4

비용 본인부담 7만 원(14만 원 지원-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

문의 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031-850-1498)

2019년 하반기 본당사회사목분과장 간담회(현장체험)

대상 본당사회사목분과장 및 분과위원

장소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 2곳

일시 1~4지구(7/6, 토), 13:10~16:30(1~4지구 버스대절, 12:30 교구청 출발)

1~4지구 버스 대절 관계로 마감일(7/2, 화) 준수

5~8지구(7/13, 토), 13:10~16:30(5~8지구 13:10까지 직접 집결장소로)

기타 지구와 상관없이 신청일 선택 가능 / 그 외 공문(사회19-181호 /6/14)참조



미사 · 피정 ▶▶

성령의 열매와 치유피정 교구 철야 기도회

일시: 매주(금) 21:30~01:30 마두동 성당(7/5)
주제: 제5주 평화
강사: 이범주 사도요한신부(서울 가톨릭대학교수)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3.4지구성령쇄신봉사회 월피정

일시: 7/1(월) 10시~16:30/주교좌 대성전
미사: 김재근 대철베드로 신부(양주백석 주임)
강사: 백순희 젤마 수녀(투스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성체신심교육)
일시: 7/3(수) 19:30~21:40 /의정부 1동 대성전
강사: 왕태연 요셉 신부(신앙교육원 부원장)
회비: 15,000원 /문의: 010-3790-0496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7/5(금)18시~7/7(주일) 15시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8지구 영성피정/금촌성당

일시: 7/2(화) 12:30~16:30
강의.미사: 김종국 토마스 아퀴나스(문래동 성당 주임사제) /문의: 010-3495-8522

첫토성모신심미사

일시: 7/6(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시 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 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 출발), 동암역(9:05분 출발), 7/4 17시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빈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기간: 7/6~8, 7/19~21, 7/27~30, 8/1~4, 8/6~8, 8/10~13, 8/15~18, 8/23~25
접수: 02-773-1463/064-756-6009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대피정

날짜: 7/19(금)~21(일) 2박3일
장소: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대상: 중고생, 대학일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7/6(토) 11시(미사, 묵주기도)
매월 첫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부부피정: 7/19(금)~21(일) /30만 원
성경완독피정: 8/10(토)~8/18(일)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전교가르멜수녀회 성소식별피정

일시,장소: 7/12(금)18시~14(일)15시, 인천 수련소 /문의: 010-5580-7765 이젬마수녀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제목: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8/2(금)13시~8/4(일)16시
대상: 중·고, 대학, 일반젊은이(35세미만)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회비: 3만 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7/6(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의정부지부 010-7131-2033

예수회 새사제 첫미사

새사제: 김성현(라파엘), 이창준(로사리오)
일시: 7/4(목) 13:30
장소: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기도를 통해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 /조형식 신부
일시/장소: 7/5(금) 10시~13시/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피정

일정,장소: 8/7(수)~11(일)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36명(1인실) /피정비: 36만 원
지도: 허 가브리엘 신부의
신청: 010-3827-0092(김 데레사)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7/6(토) 3시~7(일) 4시 *선착순
청년하루피정: 7/14 10시~4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이한택 주교와 함께하는 첫 토 피정

일시: 7/6 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031-952-6324)



교육 · 모집 ▶▶

법원리성당 지휘자, 반주자 모집

전공, 비전공 가능- 기본 주4시간
자기소개서, 교적, 신부님추천서
모집: 완료시까지
문의: 031-958-0811 /010-4708-0759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시: 7/20(토)~21(일) 1박 2일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접수: 홈페이지(7/10부터 선착순), 043-260-5076,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가정선교회 <좋은 관계를 위한 특별교육>

일시: 7/27(토) 9:30~18:00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강사: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신달자 시인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02-777-1773
회비: 1만 원(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 당일접수 가능
대상: 비신자, 냉담교우, 타종교인 등 원하시는 분 누구나 - 김밥, 차 제공/필기도구, 미사준비/개인적 지참(헌장판매)

살레시오! 여중고생 여름캠프

날짜: 7/26~28(5만 원)
주제: 작은 것들을 위한 성인
장소: 서울&평창(서울에서 집결)
신청 및 문의: 010-9749-8127

시스피나합창단 단원모집

지도: 평화방송 진행자 이호중 교수
자격: 40~65세(남, 여)
오디션: 7/8(월) 2시
장소: 시스피나음악원(신촌)
문의: 010-8886-6202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파주 EXODUS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멘토 모집

다문화가정 여성 친정언니 만들기: 결혼이주 여성들의 친구와 언니가 되어 정서지지를 통해 건강한 삶에 동행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자격: 35세 이상 60세 미만의 선주민 기혼 여성
인원: 5~8지구 거주 선착순 10명(7/31까지 모집)
교육일정: 8~9월 중 총 4회 교육(토: 10시~12시) /매칭: 총 4회 교육 수료자
접수: 파주 EXODUS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문의: 031-948-8105 멘토링 담당자
cafe.daum.net/nwpeace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후기(2차)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교육, 유아, 특수, 직업특수, 평생
모집: 7/1(월)~14(일)
면접: 7/19(금) 17시~
문의: 02-2164-4173, 4176, 4787
<https://ged.catholic.ac.kr>

관상기도 배우기(제20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일시: 7/2(화) 14시~16시(6주간)
장소: 행주 성당(회비무료)
문의: 031-974-1728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광고홍보영업 /구분: 신입, 경력(계약직)
접수: 7/10(수) /문의: 010-7266-3940
홈페이지 www.catholictimes.org 참조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7/8(월)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아카데미

의정부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대학생, 일반인
장소: 의정부성모병원내 동행안내 무인수납외
연락처: 031-820-3473(장피데스·M수녀)

바오로상담소

일반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심리적 갈등, 정서적 위축, 대인관계 및 또래 친구문제,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
위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은평뉴타운 주변)
문의: 02-381-1208, Daum카페 바오로상담소

안내 · 기타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27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9/18 터키, 그리스 13일 398만 원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9/7(추석특집)이스라엘 9일 385만 원
9/8(추석특집)그리스 일주 11일 439만 원
9/14(추석특집)일본 나가사키 4일 130만 원
9/15 유럽4개국 성모님발현지 13일 398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9/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10/15 일본 나가사키 4일 125만 원

강수근신부님과 함께하는 국악성가 캠프

일시: 8/30(금)~9/1(일) /장소: 광주명상의집
회비: 20만 원 /인원: 선착순 200명
신청: 국악성가연구소 010-2279-0255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9 추석 특선 이스라엘,요르단10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9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4일 13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일본성지순례(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출발: 매일 1회, 4박5일 /65만 원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세인트에프렘 제6회연주회

일시: 7/6(토) 20시, 일산 성당
연주곡: Missa Papae Marcelli 하
지휘: 이혜형 엘리사벳 /반주 이민경 소피아
문의: 신창순 010-5381-9026(전석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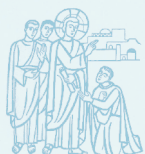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7/21~8/18(4주)
공동: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25(토)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
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루르드·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성 소 모 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7(주일) 10시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영원한도움수도회	7/7(주일)14시~18시	정릉본원강당	010-4096-597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7/6(토) 14시, 7/7(주일) 10시, 14시	명동성물방	010-3015-1773



성품성사(2) :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마르 3,14)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들이 이미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나,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함께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 곧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참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 주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7항)

오늘날, 주교들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그 교도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직무는 매우 고유하고 권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도권의 해석을 따르고 존중함으로써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교도권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일치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합니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충실히 해석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6항)

이처럼 성품성사의 품위와 권위는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느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지닌 인간적인 재능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 말씀에 봉사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성품성사를 살아가는 사제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